

한국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GABS)는 Ellis의 이론에 근거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다. 본 연구의 목적은 GABS의 한국판(GABS-K)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GABS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 등으로 구성된 5 요인 모델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양호하게 지지되었고 기존의 다양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내담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 비합리적 신념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과 적대감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같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GABS-K가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일반적 신념 및 태도 척도(GABS), 비합리적 신념, 요인분석

* 본 연구는 2008년도 부산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교신저자 :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 051-510-2125, E-mail : sgseo@pusan.ac.kr, Fax : 051-581-1457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REBT)는 인지행동치료의 주요한 한 접근으로, Ellis(1958)에 의해 제안된 이래로 많은 심리치료자들이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치료접근이다. 특히 REBT의 ABC 이론은 REBT의 핵심적인 인지치료 이론이다(Ellis & MacLaren, 2005). 여기서 'A (Adversity)'는 상황, 사람, 생각 등과 같은 것으로 촉발사건 혹은 역경을 일컫고, 'C (Consequence)'는 A로 인한 정서적 및 행동적 결과이며, 'B(Belief)'는 'A' 즉 촉발사건에 대한 신념으로 'C'를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이다. 즉 사람들은 역경 때문에 불쾌한 것이 아니고 역경에 대한 평가신념 때문에 불쾌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기능적인 평가신념인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시켜 내재화시키는 것이 REBT의 핵심적인 치료과정이다.

이렇듯 REBT 치료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왔다. Ellis(1962)는 최초에는 11 종류의 비합리적 신념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개발된 척도에는 Irrational Belief Test(Jones, 1968), Rational Behavior Inventory(Shorkey & Whiteman, 1977), Self Inventory(Plutchik, 1976), Idea Inventory(Kassinove, Crisci, & Tiegerman, 1977), Irrational Belief Scale(Malouff & Schutte, 1986)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들 중에서 Irrational Belief Scale을 제외한 대부분의 척도들이 정서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문항들은 인지를 측정하는 신념척도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척도의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Haaga & Davison, 1993; Smith, 1982, 1989; Zurawski & Smith, 1987).

나중에 Ellis는 비합리적 신념의 공통된 특징을 반영하는 4종류의 핵심 비합리적 신념을 제안하였다(Ellis & MacLaren, 2005). 핵심 비합리적 신념에는 절대적인 강요성과 당위성(Absolutistic musts and shoulds), 파국화(Awfulizing), 낮은 인내력(I-can't-stand-it-itis),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멸(Damning oneself and others)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절대적인 강요성과 당위성이 비합리적 신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지과정으로 강조되며, 다른 세 유형의 비합리적 신념은 이 신념에 이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전 척도에 대한 비판을 보완하고 4가지 핵심 비합리적 신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신념척도로 Survey of Personal Beliefs(Kassinove, 1986)와 GABS(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Bernard, 1998)를 들 수 있다. Survey of Personal Beliefs는 파국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자기를 향한 당위적 강요, 타인을 향한 당위적 강요, 자기 가치 등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을 개발하고자 하는 GABS는 Bernard(1998)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척도로, 초안은 Burgess(1986)가 개발한 96 문항짜리 척도이며 이 척도가 DiGiuseppe, Leaf, Exner와 Robin 등(1988)에 의해서 72문항짜리로 축소되었으며, 이 척도를 Bernard가 다시 수정 축소하였다. Burgess(1986)의 척도는 사고내용과 사고과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DiGiuseppe 등(1988)은 Attitudes and Belief Scale 2(ABS2)를 개발하였다. ABS2는 최근의 REBT 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문항들은 Ellis 밑에서 공

부했던 13인의 심리치료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들이다. 이 문항들은 4가지 평가적 인지과정과 3가지 내용 영역을 담고 있다. 4가지 인지과정에는 요구성, 파국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전반적인 자기평가 등이 포함되며, 3가지 내용영역은 성취(achievement), 인정(approval), 편안함(comfort) 등이 포함된다. Bernard(1998)는 ABS2의 내용영역에 공정성 영역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24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항을 ABS2에 추가시켰다. Ellis는 강요적이고 요구적인 비합리적 신념의 한 종류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와 같은 신념을 제안하였다(Ellis & MacLaren, 2005). 이 같은 공정성 관련 비합리적 신념은 특히 타인에 대한 분노감정을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Ellis & Tafrate, 1997). Bernard(1998)는 72개의 문항에 공정성과 관련된 24개 문항을 추가시켜 96개 문항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55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발췌하여 GABS를 구성하였다. GABS는 다음의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성(Rationality), 자기비하(Self-Downing),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 편안함 욕구(Need for Comfort), 공정성 요구(Demands for Fairness)(9문항), 타인비하(Other-Downing). 여기서 합리성을 제외한 6개 요인이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 합리성 척도와 비합리적 신념 척도는 부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으며, 비합리적 신념 척도는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합리적 신념 척도는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는 부적상관을, 분노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다른 척도들에 비해 GAB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GABS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 차원만을 담고 있어, 사고와 정서가 혼입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이전의 신념 척도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11개의 비합리적 신념을 제안한 Ellis의 초기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4개의 핵심 비합리적 신념을 제안한 최근의 Ellis 주장에 근거해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최신 REBT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신념을 내용과 과정 면에서 평가하고 있어 신념을 과정 면에서만 평가하고 있는 Survey of Personal Beliefs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Harrington, 2005). 셋째, 이전의 다른 척도들에 비해서 문항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피검자 입장에서 수행이 용이해졌다. 넷째, 이전 신념척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던 공정성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로 인해 분노와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GABS는 다른 신념 척도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항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피검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GABS의 단축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Linder, Kirkby, Wertheim, Birch, 1999). 단축형 GABS는 각 문항과 하위척도 총점의 상관이 .60 이상인 문항만을 남겨놓아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다. 하지만 단축형 GABS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적이 없으며 하위척도 별로 3개에서 4개의 문항수로 구성되어 있어 보고된 바는 없지만 적절한 내적신뢰도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척도(Irrational Beliefs Test: IBT)(Jones, 1968)와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Weissman & Beck, 1978)가 각각 신현균(1989)과 권석만(1994)에 의해 한국판으로 개발된 바가 있다.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한 역기능적 신념 척도가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해 개발된 바가 있으며, 이 척도의 단축형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보고된 바 있다(홍세희, 조용래,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GABS의 한국판을 개발하는 것으로, 먼저 GABS의 55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거기서 구해진 요인구조를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교차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을 비롯해서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때 포함된 척도들은 주로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척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들 척도들이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 분노가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인 동시에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하기 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비합리적 신념 점수를 비교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는 척도의 개발은 REBT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Ellis가 초기에 제안한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IBT가 빈번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최근의 REBT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은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한국판 GABS의 개발이 REBT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고취시켜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1. GABS-K 개발

방 법

연구대상

연구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관련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위해서 모집되었으며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학부 대학생 405명(남자: 149명, 평균 연령: 22세(SD=2.77); 여자: 256명, 평균 연령: 21세(SD=1.93))으로 구성되었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질문지(AQ-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일차적/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자존감 척도(SES),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ABS)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GABS-K와 다른 비합리적 신념 척도의 상관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모집되었으며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서 기초통계학을 수강 중인 학부 대학생 94명(남자: 38명, 평균 연령: 23세(SD=3.08); 여자: 56명, 평균 연령: 22세(SD=2.80))으로 구성되었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척도(IBT), 역기능적 태도 척도(K-DAS), GABS-K가 실시되었으며, GABS-K만 2주 후에 다시 실시되었으며 두 번의 검사에 모두 참여한 인원은 81명이었다.

측정도구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GABS)

GABS는 Bernard(1998)가 요인분석을 통해 DiGiuseppe, Leaf, Exner와 Robin(1988)의 ABS2를 55 문항으로 보완하여 줄인 것으로, 합리성, 자기비하, 성취욕구, 인정욕구, 편안함욕구, 긍정성 요구, 타인비하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동의한다, 5: 강하게 동의한다)상에 평정되었다. 번안은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을 영어권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상담심리학 전공자와 두 명의 임상심리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다듬었으며, 최종적으로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능통한 이중국어사용자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 번안본을 완성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Primary Anger-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심리적 불편감을 동반하며 이차적 분노사고를 일으킨다. 이 척도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라는 2 요인 구조를 보였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일치하지 않음, 2: 약간 일치함, 3: 어느 정도 일치함, 4: 상당히 일치함, 5: 거의 정확히 일치함)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6과 .80이었으며 두 하위 척도간 상관은 .65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두 하위척도 간 상관의 높아 하위척도를 구분하

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Thought Scale)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로, 총 3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련의 생각들로, 흔히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충동이나 행동,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인비난/보복, 무력감,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6, .78, .75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여기서는 세 하위척도 중에서 역기능적인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에 해당되는 타인비난/보복과 무력감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으로 구성된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

감 .67, 적대감 .76(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행동 .71, 언어적 공격행동 .83, 분노감 .60, 적대감 .75.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형의 4점 척도(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내적합치도는 특성분노는 .82였으며(전경구 등, 1997),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성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K-DAS)

이 척도는 Weissman과 Beck(1978)의 Dysfunctional Attitude Scale-A형을 권석만(1994)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으로, '성취지향성 및 자율성'과 '사회적 의존성 및 애정욕구'를 반영하는 두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비합리적 신념 척도(Irrational Beliefs Test: IBT)

이 척도는 Ellis가 그의 초기 이론에서 주장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Jones(1968)가 개발한 것을 신현균(1989)에 의해 한국판으로 개발된 것이다. 높은 자기기대감, 인정에 대한 요구, 과염려, 비난경향, 정서적 무책임감, 완벽주의, 의존성, 문제회피, 무력감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신현균, 1989), 본 연구에서는 '인정에 대한 요구'와 '비난경향' 하위척도만을 발췌해서 사용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GABS의 55 문항을 대상으로 SPSSWIN 10.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11개로 고유치 값은 다음과 같았다: 14.65, 4.05, 2.85, 2.46, 1.78, 1.67, 1.60, 1.46, 1.23, 1.20, 1.02. 스크리 검사 결과를 보면 요인수가 4개를 넘어가면서 요인간 고유치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할 이론적인 논리가 부족하고 4개의 요인수는

Bernard(1998)가 제안하고 있는 7개의 요인수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Bernard(1998)의 제안대로 요인수를 7개로 지정하고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앞서와 같이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구조계수 행렬에서 표적 요인의 계수가 .40 이상이고 동시에 표적 요인과 비표적 요인의 계수가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만 포함시켰다. 그 결과, 17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한 요인이 2개 문항만을 담고 있었고 내용 면에서도 거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 이 두 문항도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척도는 5 요인 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포함된 문항 수는 36개였다. 표 1에 최종적인 요인의 구조행렬을 제시하였다. 다섯 요인은 전체변량의 48.39%를 설명해주었으며, 5 요인 각각의 고유치는 다음과 같았다: 7.09, 6.00, 5.12, 7.06, 5.24. 본 연구에서 확인된 5 요인은 GA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인정욕구(6문항), 자기비하(9문항), 편안함 욕구(6문항), 성취욕구(8문항), 공정성 요구(7문항)라고 명명하였다. Bernard(1998)가 제안한 7 요인 중에서 합리성 요인과 타인비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타인비하 요인을 구성하던 3문항(“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례하게 대해질 때, 세상에는 이처럼 못된 구체불능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매우 부당하게 대하면, 나는 그가 나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면, 이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은 공정성 요구 요인으로 흡수되었으며, 합리성 요인에 포함되어 있던 2문항(“내가 중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

해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나는 자신을 수용하고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긍정할 수 있다.”)은 역채점 되어 자기비하 요인으로 흡수되었다. 그 외의 하위척도들은 척도별로 문항 수는 한두 개 줄었지만 GABS의 비합리적 신념 하위 척도의 문항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인정욕구 요인의 문항들은 타인으로부터 호감, 인정,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기비하 요인의 문항들은 좌절 경험 후에 자신을 하찮거나 무가치하게 보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편안함 욕구 요인의 문항들은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취욕구 요인의 문항들은 실패를 용납 못하는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공정성 요구 요인의 문항들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 못하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GABS-K 하위척도들의 α 값은 인정욕구가 .87, 자기비하가 .85, 성취욕구가 .89, 편안함 욕구가 .84, 공정성 요구가 .81로 5 요인 모두 내적합치도는 양호하였으며 비합리적 신념 전체의 α 값은 .93이었다. 각 문항과 하위척도 총점 간의 상관은 표 1에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으며 .48에서 .76 사이를 보였다.

2주 간격으로 실시해서 얻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합리적 신념 총점은 .81이었으며, 인정욕구는 .77, 자기비하가 .67, 성취욕구는

표 1. 구조계수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5
요인 1. 인정욕구					
1.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인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76)	.84	-.27	.33	.49	.38
12.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거절할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68)	.74	-.34	.40	.39	.47
7.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만약 그들이 나를 좋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68)	.73	-.28	.27	.37	.41
16.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64)	.68	-.34	.41	.37	.36
21. 나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호감을 얻어야 하며, 만약 그들이 나를 좋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62)	.65	-.24	.30	.39	.35
26.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만 하며, 만약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 할 것이다. (.58)	.64	-.28	.16	.51	.42
요인 2. 자기비하					
2.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싫어한다면, 이는 내가 나쁘거나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66)	.26	-.75	.28	.26	.20
8.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이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67)	.40	-.73	.32	.34	.21
13.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보잘 것 없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65)	.32	-.71	.33	.34	.13
17.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의 인생이 괴롭게 느껴질 때,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게 된다. (.64)	.37	-.66	.43	.34	.19
22. 직업, 학업 그리고 그 밖의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계속 실패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60)	.36	-.63	.33	.48	.23
27.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이는 내가 호감이 가지 않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53)	.22	-.59	.26	.26	.11
32.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사소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3)	.22	-.57	.34	.26	.19
31. 내가 중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48)	-.12	.53	-.16	-.29	.07
6.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나는 자신을 수용하고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긍정할 수 있다.(.45)	-.11	.49	-.18	-.16	-.01
요인 3. 편안함 욕구					
4. 나는 긴장되거나 불안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나는 긴장감을 견디기가 어렵다. (.64)	.25	-.32	.75	.28	.17
10. 긴장감, 초조감,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괴롭고 두려운 일로 여겨지며,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로 생각된다. (.66)	.39	-.37	.71	.29	.23
15. 불편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무 괴롭다. (.56)	.19	-.19	.68	.17	.21
19. 나는 살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괴로운 일들을 참기 어렵다. (.64)	.47	-.38	.67	.21	.33
29. 가끔 나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어려움들과 짜증스러운 일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며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라도 겪은 것처럼 생각한다. (.59)	.33	-.33	.60	.21	.37
24. 살아가면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이 내게는 몹시 두려운 일이며, 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매우 끔찍스럽게 여긴다. (.59)	.43	-.40	.60	.31	.25

표 1. 구조계수 (계속)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5
요인 4. 성취욕구					
3. 나는 내가 중요한 과제들에서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며, 실패한 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75)	.54	-.41	.31	.79	.34
9. 내가 내 자신에게 중요한 과제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74)	.45	-.33	.27	.77	.39
14. 중요한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9)	.38	-.43	.31	.73	.32
18.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만약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70)	.59	-.33	.22	.71	.42
23. 나는 중요한 일에서 반드시 잘 해내야 하며, 만약 내가 잘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68)	.43	-.25	.22	.71	.35
35. 중요한 일을 잘 해내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나는 그러한 일들에서 반드시 잘해내야만 한다. (.61)	.43	-.17	.10	.66	.37
33. 내가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59)	.26	-.36	.29	.63	.20
28. 나에게 중요한 일들에서 실패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들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58)	.33	-.28	.21	.63	.27
요인 5. 공정성 요구					
5.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부당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2)	.44	-.04	.19	.34	.74
11.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나는 그런 행동이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57)	.33	-.09	.15	.27	.68
20. 나는 사람들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아야만 하며, 나는 부당한 행위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51)	.36	.11	.07	.32	.63
25.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면, 이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57)	.42	-.27	.31	.26	.61
30. 어떤 사람이 나를 매우 부당하게 대하면, 나는 그가 나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56)	.39	-.32	.32	.33	.59
36.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례하게 대해질 때, 세상에는 이처럼 못된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51)	.27	-.20	.29	.31	.55
3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이 부당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51)	.43	-.19	.34	.42	.52
고유치	7.09	6.00	5.12	7.06	5.24
전체 설명변량(%)	48.39				

.72, 편안함 욕구는 .69, 공정성 요구는 .76이었다. 이는 GABS-K의 양호한 시간적인 안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개인의 지속적인 인지구조를 반영한다는 주장과도 일관된다(권석만, 1995; Ingram & Kendall, 1987).

표 2에 따르면, 하위척도 간의 상관은 .29에서 .61사이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녀 집단간 평균 비교

하위척도별, 남녀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하위척도 중에서 편안함 욕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좌절이나 불편감에 대한 인내력이 더 낮은 것

표 2. 하위척도 간 상관분석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욕구	성취욕구
자기비하	.44**			
편안함욕구	.48**	.47**		
성취욕구	.61**	.49**	.39**	
공정성요구	.58**	.29**	.41**	.52**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표 3. 하위척도별 평균(표준편차)과 남녀 차이 검증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t
	남자(n=149)	여자(n=256)	
인정욕구	15.97(4.18)	16.45(4.10)	-1.13
자기비하	20.34(5.13)	20.15(5.22)	.35
편안함욕구	14.64(4.07)	16.07(4.23)	-3.32**
성취욕구	23.00(6.08)	23.28(5.32)	-.53
공정성욕구	20.95(4.20)	21.07(4.21)	-.28
총점	97.55(18.07)	99.37(16.05)	-1.03

** $p < .01$ (양방검증)

으로 시사되었으며, 그 외의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표 4는 다른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로, 이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들이 기존의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내용상 유사한 하위척도들, 즉 GABS-K의 인정욕구나 성취욕구와 IBT-인정, 공정성 요구와 IBT-타인비난 간에는 보다 높은 상관을 보

표 4. 다른 비합리적 신념 척도들과의 상관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	총점
IBT-인정	.50**	.22*	.38**	.58**	.40**	.52**
IBT-타인비난	.31**	.19	.23*	.41**	.59**	.44**
DAS						
성취지향성	.44**	.56**	.47**	.52**	.40**	.60**
의존성	.59**	.43**	.46**	.51**	.42**	.59**
총점	.58**	.61**	.58**	.63**	.48**	.72**

IBT: Irrational Beliefs Test

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이는 경향이 있었다. GABS-K 총점과 DAS 총점의 상관은 .7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GABS-K 하위척도들은 AQ-K의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대부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TAXI-K와의 상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GABS-K 하위척도들은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분노통제와는 유의한 상

관을 보이지 않거나 경등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분노사고와 GABS-K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든 GABS-K 하위척도들이 일차적 분노사고나 이차적 분노사고(타인비난/보복, 무력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비합리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무력감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에서

표 5. 다른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	총점
AQ-K						
신체적 공격성	.12*	.18**	.06	.12*	.21**	.18**
언어적 공격성	.09	.09	.02	.18**	.26**	.18**
분노감	.26**	.20**	.34**	.20**	.34**	.34**
적대감	.29**	.38**	.36**	.35**	.36**	.43**
총점	.24**	.28**	.24**	.27**	.37**	.36**
STAXI-K						
특성분노	.26**	.21**	.31**	.33**	.37**	.39**
분노표출	.17**	.13**	.15**	.15**	.28**	.23**
분노억제	.25**	.29**	.32**	.24**	.32**	.37**
분노통제	-.10	-.07	-.14**	.03	-.11*	-.08
일차적 분노사고	.44**	.34**	.37**	.30**	.50**	.50**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29**	.22**	.18**	.29**	.45**	.38**
무력감	.24**	.32**	.41**	.24**	.22**	.36**
SES	-.11*	-.50**	-.37**	-.13**	-.06	-.26**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ES: Self-Esteem Scale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는 공정성 요구를 제외한 모든 GABS-K 하위 척도들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GABS-K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다.

연구 2. 교차타당화 연구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이 참여하였다. 서울 시내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중인 학부 대학생 192명(남: 84명, 여: 182명)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실시했던 질문지들에서 자존감 척도만을 제외한 질문지 묶음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2.95세(SD=3.18)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21.06세(SD=1.62)였다.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21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집단에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남자 내담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25.57세(SD=4.96)이었으며 여자 내담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24.87세(SD=4.43)였다.

결 과

확증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 제안된 GABS-K에 대한 5 요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hi^2=1582.40$ ($df=584$,

$N=413$)($p<.0001$), $NFI=.962$, $NNFI=.973$, $CFI=.976$, $RMSEA=.064$. χ^2 결과는 모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χ^2 는 검증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모델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다른 적합도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순목, 1990). NFI , $NNFI$, CFI 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고, $RMSEA$ 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를, .05에서 .08 사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10을 초과하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이순목, 1990; 홍세희, 2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5요인 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NFI , $NNFI$, CFI 모두에서 .90 이상의 값을 보여 양호한 적합도가 시사되었다. $RMSEA$ 도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 의 90% 신뢰구간도 .061에서 .068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적합도 수준은 표본이 달라지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문항별 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치는 .52에서 .85 사이를 보였다.

상관분석

GABS-K와 분노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GABS-K가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상관이 연구 1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GABS-K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연구 2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즉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감이나 적대감

표 6. 대학생(내담자) 집단의 상관계수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	총점
AQ-K						
신체적 공격성	.02(.05)	.03(-.07)	.02(.07)	.06(.02)	.15*(.17*)	.06(.05)
언어적 공격성	.11(-.03)	-.05(-.17**)	-.19**(.00)	.20**(-.06)	.16*(.18*)	.07(-.04)
분노감	.22**(.18*)	.20**(.14)	.29**(.42**)	.17*(.16*)	.25**(.26**)	.28**(.30**)
적대감	.24**(.32**)	.23**(.36**)	.27**(.33**)	.34**(.30**)	.31**(.23**)	.38**(.43**)
총점	.18*(.20**)	.15*(.12)	.15*(.28**)	.26**(.17*)	.29**(.28**)	.27**(.27**)
STAXI-K						
특성분노	.31**(.27**)	.27**(.21**)	.29**(.27**)	.35**(.29**)	.42**(.35**)	.44**(.37**)
분노표출	.10(.08)	.10(.01)	.28**(.23**)	.12(.05)	.15*(.22**)	.19**(.14*)
분노억제	.21**(.35**)	.32**(.39**)	.42**(.44**)	.34**(.29**)	.17*(.32**)	.41**(.49**)
분노통제	-.15*(-.15*)	-.18*(-.06)	-.35**(-.29**)	.01(-.03)	-.12(-.23**)	-.19*(-.19**)
일차적 분노사고	.31**(.41**)	.20*(.38**)	.31**(.36**)	.38**(.31**)	.45**(.50**)	.44**(.52**)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11(.19*)	.14(.10)	.19**(.26**)	.18**(.11)	.31**(.42**)	.25**(.27**)
무력감	.18*(.31**)	.43**(.51**)	.52**(.46**)	.25*(.32**)	.13(.17*)	.41**(.50**)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수준이 높았고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을 더 많이 보였으며, 반대로 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통제는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역기능적인 분노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평균 비교

대학생 집단과 대학생 내담자 집단이 비합리적 신념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내담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비합리적 신념 수준을

표 7. 대학생 집단과 내담자 집단 평균 비교

	평균(표준편차)		t
	대학생(n=193)	내담자(n=212)	
인정욕구	16.24(3.77)	18.45(4.43)	-5.43**
자기비하	19.54(4.71)	23.81(6.60)	-7.52**
편안함 욕구	15.39(4.10)	18.94(4.61)	-8.15**
성취욕구	23.26(5.94)	27.00(5.99)	-6.26**
공정성 요구	20.87(3.89)	23.77(4.14)	-7.21**
총점	95.40(16.89)	111.97(18.98)	-9.13**

** $p < .01$ (양방검증)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검증 결과는 이 예언을 지지하였다. 내담자 집단이 모든 비합리적

신념 하위 척도들에서 일관되게 대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인지치료자들의 주장과 일관되는 결과이며, GABS-K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논 의

인지치료의 핵심 과정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REBT의 창시자인 Ellis에 의해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일찍부터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이 개발되어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념 척도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최근의 REBT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GABS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GABS-K는 인정욕구, 자기비하,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공정성 요구 등으로 구성된 5 요인 구조를 보였다. 5 요인 모델은 이후에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GABS-K는 IBT와 DAS 같은 기존의 다른 비합리적 혹은 역기능적 신념 척도들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했다. GABS-K의 임상적 활용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학생 집단과 대학생 내담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은 내담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GABS-K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잘 평가해 주고 있으며

인지치료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GABS-K의 타당도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자주 심하게 경험하고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내담자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GABS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GABS-K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GABS의 합리성과 타인비하 요인이 GABS-K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항수가 55문항에서 36문항으로 줄어들어 피검사 입장에서 검사 수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GABS-K의 5개 하위척도들은 문항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GABS의 해당되는 하위척도의 문항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었어, GABS에서 확인된 주요한 비합리적 신념의 요인들이 GABS-K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었다. GABS의 타인비하 요인을 구성하던 3 문항이 GABS-K의 공정성 요구 요인으로 흡수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성 요구 요인의 기존 문항들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GABS-K는 GABS과 비교했을 때 문항수나 요인수 면에서 보다 간명해진 척도라고 할 수 있다. 7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미국판 GABS가 한국판 GABS에서는 합리성과 타인비하 요인이 빠져 5요인 구조를 보였다. 그 이유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번역상의 오류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판 GABS 개발 과정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 하지만 연구1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문항내용을 분석해 보면 합리성 요인에 포함되어 있던 2문항

“내가 중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나는 자신을 수용하고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긍정할 수 있다.”)이 역채점 되어 자기비하 요인으로 흡수되고 타인비하 요인을 구성하던 3문항(“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례하게 대해질 때, 세상에는 이처럼 못된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매우 부당하게 대하면, 나는 그가 나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면, 이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 공정성 요구 요인으로 흡수된 것이 적어도 문항내용을 고려했다면 큰 무리가 없게 여겨진다. 미국판 GABS가 10문항으로 구성된 합리성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기는 했지만 비합리적 신념이 45문항인 것에 비해서 그 비중이 적어서 합리적 신념을 포괄적으로 평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타인비하 요인도 3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합리적 신념의 다른 하위 척도에 비해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수가 적어 내적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도 Bernard(1998)는 GABS 타당화 연구에서 GABS의 하위 척도별 내적신뢰도와 문항별 요인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비합리적 신념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키는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인지적인 취약성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권석만, 1995; Ingram & Kendall, 1987). 비합리적인 신념의 요인 구조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는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상담 초기에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비합리적인 신념과 심리적 증상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도 GABS-K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먼저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검자가 대학생 집단이라는 점과 GABS-K와 심리적 부적응 상태의 관련성을 보는 상관분석이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이 추가 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GABS가 미국 문화권에서 제작된 비합리적 신념 척도라는 점에서 한국 문화권에도 얼마나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이후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 문화권의 실정에 맞는 비합리적 신념 척도가 개발되는데 한국판 GABS가 제한적이거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GABS 번역 과정에서 GABS 영문 척도와 GABS 번역본의 back-translation 본을 대조해 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번역 과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미국판 GABS에는 포함되어 있던 합리적 신념 요인이 빠졌는데, 이후 연구에서 비합리적 신념에 상응하는 합리적 신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평가 척도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성에 대해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 권석만 (1995). 정신병리와 인지 I: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자료집.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87-501.
- 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22.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홍세희, 조용래(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 Bernard, M. E. (1998). Validation of the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6(3), 183-196.
- Burgess, P. (1986). *Belief systems and emotional disturbance: evaluation of the rational emotiv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Parkville, Melbourne, Australia.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 Ellis, A. E. (1958). Rational psychotherap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9, 35-49.
- Ellis, A. E.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Stuart.
- Ellis, A. E.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2nd). Impact Publishers.
-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Jones, R. (1968). *A factorial measure of Ellis's irrational belief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nological College.
- Haaga, D. A. F., & Davison, G. C. (1993). An apprais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215-220.
- Harrington, N. (2005). The frustration discomfort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 propertie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 374-387.
- Ingram, R. E. & Kendall, P. C. (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Kassinove, H. (1986). Self-reported affect and core irrational thinking: A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4(2), 119-130.
- Kassinove, H., Crisci, R., & Tiegerman, S. (1977), Developmental trends in rational-emotive school mental health progra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 266-274.
- Linder, H., Kirkby, B., Wertheim, E., & Birch, P. (1999). A brief assessment of irrational thinking: The Shorten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651-663.
- Malouff, J. M., & Schutte, N. S.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irrational belief.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860-862.
- Plutchik, R. (1976). The self Inventory: A measure of irrational attitudes and behavior. *Rational Living*, 11, 31-33.
- Roseng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orkey, C. T., & Whiteman, V. L. (1977). Development of the Rational Behaviour Inventory: Initial validity and reliabil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527-534.
- Smith, T. W. (1982). Irrational beliefs in the cause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tress: A critical review of the rational-emo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505-522.
- Smith, T. W. (1989). Assessment in rational-emotive therapy: Empirical access to the ABCDE model. In M.E. Bernard & R. DiGiuseppe (Eds.), *Inside Rational-Emotive Therapy: A Critical Appraisal of the Theory and Therapy of Albert Ellis*. New York: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Zurawski, R., & Smith, T. (1987). Assessing irrational beliefs and emotional distr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of limite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24-227.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8
계 재 결 정 일 : 2009. 2. 9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Korean version

Su-Gyun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GABS) is a scale to assess irrational beliefs on the basis of Ellis's theor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GABS-Korean version. In study 1, the GABS was administered to 405 undergraduate students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rrational belief scale of the GABS-K was composed of five factors(Need for Approval, Need for Achievement, Need for Comfort, Demands for Fairness), and the GABS-K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ther irrational belief scales.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GABS-K showed that 5 factor model was supported satisfactorily, and the client group was higher than the normal student group in all the irrational belief subscales. Subjects with the higher irrational beliefs tend to be higher Anger-out/ Anger-in and more angry and hostile.

Key words :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Korean version(GABS-K), irrational belief, factor analysis.